



전경련

# 報道資料

전국경제인연합회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TEL: 3771-0114 FAX: 3771-0110

URL: <http://www.fki.or.kr>

본 자료는 1월 28日(금) 조간이후 보도바랍니다.

※ 내용문의 및 연락처 : 산업조사실 이병욱 실장 (3771-0304)  
이주현 조사역 (3771-0464)

##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 전수 - '일본 경단련 환경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전경련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산업계 자율환경보호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경련은 1월27일(목) 일본 경단련 환경담당 임원 등을 초청하여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산업계 공동 자율환경보호 실천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산업계 자율환경보호 실천계획」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sup>1)</sup>(GHG) 감축 압력 증대에 대한 산업계의 자발적·능동적 대응방안의 하나이다.

이미 일본의 경단련은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실천한 바 있는데 일본의 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동 계획에 의해 CO<sub>2</sub>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화와 일본 산업의 환경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기업의 자율행동계획은 환경보호를 위한 핵심 활동

일본 경단련의 나가마츠 상무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은 기업의 자발적인 저감활동으로 지난 '90년에 비해 생산활동대비 CO<sub>2</sub>의 배출량이 5.9%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수송분야와 가정부분의 CO<sub>2</sub>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CO<sub>2</sub> 배출량은 '90년에 비해 7.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 Greenhouse Gas, (CO), (CH), (N O), (PFC), (HFC), (SF6)

경단련의 자주행동계획은 산업계 자발적으로 각 업종별 CO<sub>2</sub> 배출량 감축을 위해 CO<sub>2</sub> 배출량, CO<sub>2</sub> 배출 원단위, 에너지 소비,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교수·NGO·연구원으로 구성된 제3자 평가를 통해 계획대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자주행동계획은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서도 핵심중의 하나로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단련의 분석에 의하면 동 계획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향후 과제로써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자주행동계획의 강화와 사무실 및 물류 분야의 에너지 저감,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종업원 환경교육, Summer-time 등과 같은 국민계발운동이 이루어져 범국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은 교토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로, 선진국 뿐만아니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토의정서와 같은 총량 저감 목표보다는 현실적이며 유연한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의 혁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전경련은 2005년중 업종별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산업계 자율환경보호 실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기후변화협약 및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가능경영을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경단련의 환경자주행동 계획이 많은 참고가 된다고 밝혔다.

※ 유첨 : 기후변화협약과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요약)

### □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추진 경과

- 경단련 지구환경헌장 발표 (1991년 4월 23일)
- 경단련 환경어필 발표
  - 21세기의 환경보전을 향한 경제계의 자주 행동 선언 (1996년 7월 16일)
-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발표 (1997년 6월 17일)

	온난화 대책	폐기물 대책
제1회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follow-up	1998년12월15일	1999년12월6일
제2회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follow-up	1999년11월24일	
제3회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follow-up	2000년11월2일	2001년1월30일
제4회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follow-up	2001년10월19일	2002년2월8일
제5회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follow-up	2002년10월17일	2003년3월5일
환경자주행동계획 2003년도 follow-up 결과	2003년11월21일	2004년3월15일
환경자주행동계획 2004년도 follow-up 결과	2004년11월26일	

- 제3자 평가 위원회 운영

### □ 일본의 기후변화 대책

- 일본정부 : 지구온난화추진대책 추진 (2002년 3월)
  - 목표 : 경제와 환경의 상생 추구
  - 단계적 접근방식 채택 (2004년, 2007년 중간검토)

분야	대책
산업	· 자주행동계획
운송	· 고연비 차량 개발 및 보급 · 공공운송 활용 증진 · 교통통제시스템 구축
가정 및 사무실	·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 선도기업 장려
에너지 공급	· 원자력 발전 보급 촉진
기타	· 탄소저장소로써의 삼림 보전 · 기술혁신 촉진 · 일반국민 의식 제고

- 자주행동계획 강화 : 목표달성을 반 의무화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기업의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 운영
- 탄소세/환경세 도입
- 일본정책에 대한 경단련 입장
  - 규제 및 환경세 도입에는 반대
  - 자주행동계획 강화
  - 기타 온실가스 저감대책 강구
    - 에너지절약제품 및 서비스 제공
    - 기후변화에 대한 종업원 교육 추진
    - 온실가스 해외저감 프로젝트 추진
- 자주행동계획
  - 일본 경단련이 중심이 되어 37개 업종의 137개 산업조직이 참여하여 선언한 자발적인 환경행동 계획 (2004년 34개 업종 참여)
  - 지구온난화방지, 폐기물관리, 환경경영 및 감사 등 4개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지침 제공
  - 특징
    - 각 산업별 자율적으로 현시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최대한의 내용 정리
    - 제조업·에너지다소비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운수·건설·무역·손해보험 등 폭넓은 참여
    - 온난화 대책 및 폐기물 대책에 대한 수치목표 설정
    - 매년 결과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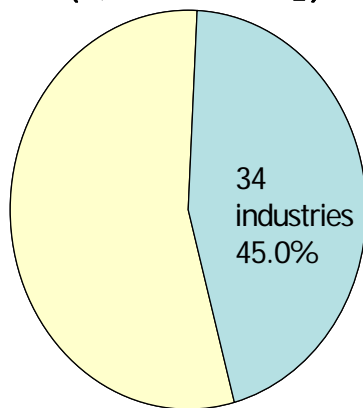
- 참여업종

Industry	targets	Compared to fiscal 1990	Industry	targets	Compared to fiscal 1990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	CO2 emission intensity	-20%	Japan Aluminum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10%(from 1995)
Petroleum Association of Japan	Energy intensity	-10%	Brewers Association of Japan	CO2 emission	-6%
Japan Gas Association	CO2 emission	-37%	Japan Electric Wire and Cable Makers' Association	Energy consumption	0%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	Energy consumption	-10%	Japan Auto-body Industries Association, Inc.	CO2 emission	-10%
Japan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10%	Japan Dairy Industry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0.5%/year
Japan Paper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10%	Japan Brass Makers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7.5%(from 1995)
Cement Association of Japan	Energy intensity	-3%	Japan Society of Industrial Machinery Manufacturers	CO2 emission intensity	-1%/year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dustry	CO2 emission intensity	-25%	Japan Bearing Industrial Association	CO2 emission intensity	-13%(from 1997)
Japan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CO2 emission intensity	-12%	Japan Sugar Refiners' Association	CO2 emission	-20%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CO2 emission	-10%	Japan Sanitary Equipment Industry Association	CO2 emission	-20%
Japan Auto Parts Industries Association	CO2 emission	-7%	The Japan Soft Drinks Association	CO2 emission intensity	-6%
Japan Federation of Housing Organizations	CO2 emission	-7%	Limestone Association of Japan	Energy intensity	-6%
Japan Mining Industry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10%	Japan Machine Tool Builders'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6%(from 1997)
Japan Lime Association	Energy consumption	-6%	Flour Millers Association	Energy intensity	-2%
The Japan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CO2 emission	0%	Japan Shipbuilders' Association of Japan	Energy intensity	-10%
The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s of Japan	CO2 emission	0%	Japan Industry Vehicles Association	CO2 emission	-10%
Flat Glass Association	Energy consumption	-15%	Japan Association of Rolling Stock Industries	CO2 emission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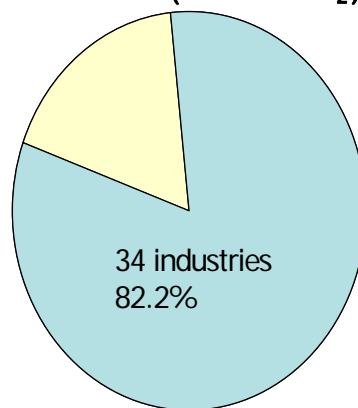
- 2004년 결과 : 34개 산업 참여 (CO<sub>2</sub> 배출량 - 505.55Mt)

- 산업별 CO<sub>2</sub> 배출량은 1990년대비 5.9% 감소, 2002년대비 0.6% 감소

**Ratio against the total 1990 CO<sub>2</sub> emissions (1,122.3M t-CO<sub>2</sub>)**



**Ratio against the 1990 CO<sub>2</sub> emissions from the entire industrial and energy-converting sectors (615.0M t-CO<sub>2</sub>)**



- 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 투명성 결여
    - 참여기업의 노력 및 성과 미미
    - 산업별 목표와 전체목표의 관계가 불명확
  - 신뢰성 부족
    - 목표달성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에는 불충분
    - 목표의 상향조정이 필요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대응방안
  - 교토메커니즘 적극 활용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2013년 이후의 Post 교토의정서 준비
    - 선진국 뿐만아니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CO<sub>2</sub> 총량 저감이 아닌 현실적이며 유연한 실행방안 모색
    -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혁신기술 개발 및 확산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대응방안
  - 자주행동계획 강화
  - 기타 분야의 CO<sub>2</sub> 저감
    - 사무실 및 물류 분야의 에너지 저감,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종업원 환경교육, Summer-time 등과 같은 국민계발운동 강화